

英 출신 비구니의 치열한 구도여정



◆텐진 페모 스님.

‘나는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되리라’

비키 메켄지 지음 / 세등 스님 옮김

김영사 / 9천9백원

리한 위협, 공핍, 금욕, 고독을 견뎌내고 그리고 여성이라는 편견을 극복해 영적 스승이 됐다. 특히 그는 벽장 하나 크기의 좁은 공간에서 ‘여성은 은거 수행을 할 수 없다’는 편견에 맞서 자신을 단련해갔다. 물론 수행은 고통 그 자체였다. 혹독한 추위와 육체적 질병을 이겨내며 더 높은 영적 경지에 오르려는 의로운 텐진 페모의 ‘싸움’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동시대인의 기록인 데다 참선, 요가 등 동양

자 캄트를 린포체와의 만남을 통해 불법에 귀의했고, 서구 여성으로서 티베트 불교에 출가한 두 번째 인물이 됐다. 그러나 린포체의 수백여 제자들 중 유일한 여성인 그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행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다. 티베트 불교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속에서 그가 택한 길은 개별 수행. 그는 요가 수행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히말라야의 한 동굴로 들어갔다. 바로 이 책에 삶에 대한 의문이 가득했던 벽안(盲眼)의 아가씨가 동굴 안에서 불성(佛性)을 체득해가는 과정이 훌륭하게 펼쳐져 있다.

이 책의 저자는 불교와 명상에 관심이 깊은 영국 출신 여성 저술가 비키 메켄지다. 텐진 페모에게 책의 출간 허락을 어렵게 받아 내어 면담, 구술, 행적 담사를 통해 완성했다. 번역자는 불교 여성학 연구를 위해 94년부터 4년동안 미국 UC 버클리대학의 객원 연구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비구니 세등 스님. 간결하지만 인간 냄새 물린 통가는 번역 실력 때문인지 한 여성의 수행 궤적이 술술 넘겨진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여성은 은거수행할 수 없다” 편견에 맞서 12년 동안 히말라야 동굴서 목숨 건 수행



성불(成佛)에 이르는 길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무문관에서 수십년간 화두를 붙들고 웅맹정진하는 선승들. 설산에서 몇년씩 고정정진을 일삼는 구도자들에게 깨달음은 목숨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이런 고행은 여성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는 아니다.

‘나는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되리라’는 한 여성 수행자의 고단했던 수행여정을 소개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텐진 페모(Tenzin Pemo)’. ‘수행을 계속하고 가르침을 떠받드는 영예로운 여인’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영국 태생 티베트 비구니다. 그는 24년 동안 인도, 티베트 등지에서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공부했다. 특히 그중 12년은 히말라야 설산 동굴에서 독거하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치열하게 수행했다. 인간이 삶을 살아나가기에 지독하게 불

적 수행문화에서 멀찍이 벗어나 있는 서양, 그것도 여성의 구도 기록이기 때문인지 이 책이 과거 한국·인도·중국 선사들의 선 수행담보다 더 신선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1943년 영국 런던에서 생선장수의 딸로 태어난 그가 불교에 다가서려고 고행 런던을 떠나 인도로 발길을 돌릴 때의 나이는 꽃다운 스무살. 이후 그는 티베트의 영적 지도

오현 스님의 가르침 담은 산문집

‘졸락’.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알껍질을啄(啄) 때(뚫)고 어미닭이 바깥에서 알을 탁탁 쪼는 때(탁)가 만나는 순간이다.

불가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를 비유하는 졸락의 인연을 시인 이홍섭씨는 오현 스님을 시봉하면서

깨달았 **가슴을 청아하게 해주는 경구·식귀도** 인연 하나하나 엮어 ‘곱게 짠 인

연’이 됐다. 하지만 이 책에서의 인연은 결코 사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저자가 내내 머무르던 내설악의 자연과 맺은 인연, 읽는 이의 가슴을 청아하게 해주는 경구와 식귀들과 맺은 인연들도 곱게 담겨져 있다.

김주일 기자

수많은 스님과 신도들에게 밥을 지어주며 기도를 올리는 할머니 보살. 마구 달음박질치는 ‘퍼포먼스’ 같은 삶을 살면서도 극히 정제된 글을 썼던 중광 스님. 아기가 돌 정도 딸린 젊은 부부를 방으로 초대해 저 환한 대접하며 한담을 즐기던 부킹 스님 등.

이렇듯 수많은 인연 하나하나 엮어 ‘곱게 짠 인연’이 됐다.

김주일 기자



‘곱게 짠 인연’

글·사진 / 이홍섭

해토 / 8천5백원

정토교학 대표적 고전 풀이



‘왕생론주 강설’

태원 스님 지음

운주사 / 2만원

그동안 정토학 연구에 매진해 온 태원 스님(중암승가대 교수)이 쓴 <왕생론주 강설>은 인도 유가(瑜伽)의 대학승인 천진(秦震) 보살이 극락세계의 장엄을 29종으로 나누어 설명한 것으로 원래는 <무량수경우바제사원생계>이다. 글자대로 풀이하면 ‘무량수경의 본 뜻에 맞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극락왕생의 원

을 세우지 않은 계승’이란 뜻으로 실제로 그리 길지 않은 글이다. 그래서 그 의미를 살려 정토 종에서는 <왕생론>이라고 한다. 이것이 보리유지에 의해 한역경전으로 번역됐고, 다시 담란(476-542)이 공(空)과 유(有)를 결합시킨 해설을 붙였으며, 여기에 태원 스님이 본인의 이해를 위한 주(註)를 달고, 이해하기 쉽게 다

시 강설을 덧붙였다. 즉 인도에서 저술된 <왕생론>이 중국에서 살아 붙여져서 <왕생론주>로, 다시 한국으로 와서 현대적 해석이 덧붙여져 <왕생론주 강설>로 태어난 것이다.

이 책은 정토의 장엄과 염불수행에 대해 서술한 정토교학의 대표적 고전이다.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정토수행은

러진 것처럼 아마 타불의 분원력, 즉 타력(他力)에 의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법으로, 염불을 통한 왕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바로 이 책은 중생을 정토, 즉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해주는 정토수행의 진면목을 확인시켜 준다.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의 서두에는 담란의 생애와 그가 영향을 받은 사상들을 소개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새로운 책



조선시대 ‘호불’ 관련 사료

‘현정론·간폐석교소’

김기영 역주

한국불교연구원 / 1만2천원

조선시대의 사회적 계층모형을 장악한 유교층의 배불(排佛) 주장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세에 몰렸던 불교층의 반박 논리는 그 수가 많지도 않을뿐더러 또한 주목받지 못해 깊이 연구되지 못했다. 김기영 교사(경기여고)는 이 책에서 불교층의 반박 논리를 호불론으로 규정하고 관련 사료들을 모아 정리했다. 합허의 <현정론>, 논리정연한 상소문 형식으로 이루어진 백곡의 <간폐석교소>, 불교를 옹호하는 열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설잡의 <심장문>, 조선 후기 연암의 <상한능주필수장서> 등 4개의 호불론 사료에 주석을 달았다.



큰스님들 법문·참선 소개

‘도란 무엇인가’

도우 스님 지음

화남 / 1만원

이 책은 도우 스님(삼각산 도선사 염불선원장)이 역대 큰스님들의 법문과 화두, 그 참선과정을 소개한 것이다. 특히 달마대사를 비롯해 보지공화상, 소동파, 백낙천, 인대방스님, 묘보수좌, 장사경장 스님, 각법 스님, 불해법전사, 법통선사, 현각대사, 석두화상, 승전대사 등의 계승, 어록, 참문, 시승, 열반승, 참종계를 원문과 함께 번역을 해 실어 놓아 큰 가르침을 전해준다. 또 스님의 자작 선시 12수와 함께 성철, 청담 스님과의 각별한 법문도 소개해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던 두 큰 스님의 수행자적 풍모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학춤 탄생배경·전승 규명

‘사찰학춤연구’

백성 스님 지음

한림원 / 1만5천원

사찰에서 왜 학춤을 추었을까? 통도사 백성 스님이 최근에 펴낸 <사찰학춤 연구>를 읽은 이들이라면 한번쯤 물어봤을 의문이다. 하지만 스님은 “학춤은 사찰에서 승려들에 의해 작법과 함께 전승돼온 불교문화예술”이라고 소개한다. 특히 이 책에 자세히 설명된 사찰학춤의 탄생배경과 개념정리, 불교작법과의 연관성, 전승배경 등을 읽다보면 ‘사찰에도 학춤이 있었구나’ 하는 의문이 풀리면서 고개가 끄덕여진다. 또 아직은 문화재로 인정받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사찰에서 소중하게 계승해야 할 전통춤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책방 예시이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영원한 대자유인	강정진	공리
2	가장 행복한 공부	정화스님	시공사
3	유식 30송	서광스님	불광
4	불은 답을 알고 있다	에모투 마스투	나무심는사람
5	소리없는 소리	세심사역	시월
6	왕생론주강설	이태원	운주사
7	화	탁나한명	진
8	꿈	단정자취	호미
9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스님	호림
10	법화경 이것이 불교다	두비스님	불광

도서 안내: (02) 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예시이문 전화: (02) 737-0695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범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가족을 부처님처럼!

불자의 가족사랑

김현준 지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올리는 우리의 기도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불보살님의 가피와 진정한 사랑, 이것이 합하여지면에 녹아내리지 못할 열매이 어디에 있으며 성취 못할 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기 부처님께서 깨우쳐주신 비결에 기초하여

- 가족이 되어 만나는 인연,
- 가족을 위한 세가지 기도법과 참회법,
- 걱정 대신 축원을 하는 생활,
- 구체적인 향상의 자녀교육법,
- 부부사랑을 키우는 비결,
- 불교 특유의 효 사상과 효도방법

등을 감동적으로 풀이한 책이 있습니다.

간허 청하유니, 이 책을 통하여 가족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가족과 나, 그리고 우리의 주위가 차츰 불국토로 변할 것입니다.

4×6판 / 176쪽 / 값 3,500원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 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득경·사경천도법, 사삼구제,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우룡 큰스님의 금강경 강설집!

생활 속의 금강경

영가의 바른 천도를 원하십니까?
깨달음의 마음,
지제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생활 속의 금강경』은 그토록 어렵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켜 쉽고도 재미있게 풀이한 책입니다.

뜻을 알고 득경을 하면 그 공덕은 더욱 커지는 법! 이제 『생활 속의 금강경』을 통해 집안의 영가를 천도하고 우주에 가득찬 지혜와 영광과 행복을 가득 누리보시기 바랍니다!

신국판 / 304쪽 / 값 6,000원

영가천도를 위한 득경용 경전!

- * 아름다운 우리말 경전 ① 금강경
- * 아름다운 우리말 경전 ② 부모은중경

독송의 방법과 축원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각권 100쪽 / 국반판 / 값 1,000원

지장신앙·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뿐 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백중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에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득경 및 지장보살 예찬,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영가천도·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 큰스님의

생활 속의 기도법

여러 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켜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 / 값 3,500원

일타 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 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험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